

전남

장성 고품질 쌀 육성사업 빛났다

원자재값 상승과 쌀값하락 등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장성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빛을 받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생산비율이 최대 48%까지 절감되고 출하·건조에 따른 노동력도 98%까지 감소해 농가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

호평벼 재배 670ha 확대... 생산비 48% 절감

건조·저장시설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400원을, 계약재배 호평벼는 10a당 6만7천880원의 직접생산비를 지원해 10a당 직접생산비 15만9993원의 최대 48%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기 지원했다. 장성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호평벼 계약재배 농가는 공공비축미 40kg 1등급 확정가에 8천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천일건조·정선·포장을 약 0.5시간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기존의 방식보다 무려 98%가 절감된 것이다.

장성군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첨단 가공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첨단 가공시설은 농가 소득창출 및 브랜드쌀의 유통시장을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2010년 전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으로 우리 군 고품질 브랜드쌀인 '365생'이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희기자 yongho@



그림같은 조도의 전망

최근 진도군 조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전망대에서 다도해 해상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가 주관한 경관 해설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서부사무소는 흥도에서 '늘 푸른 흥도숲속'이라는 자연해설 프로그램을, 조도에서 경관 해설프로그램인 '조도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다.

/신안=조완범기자 wncho@

‘서해 멀치 조업분쟁’ 조정 시작

어업조정위, 안건 상정... 현지 방문 어민 설득키로

지난 2000년 이후 수은 상승 등 어장 환경변화로 전남·충남 등 서해에 새로운 멀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심화되고 있는 멀치잡이 어민들간 조업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이 시작됐다.

사무소장을 비롯해 박규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장, 박성욱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장, 우영문 신안 북지방장 등 수협, 어업인 대표,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또 어업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실현 불가능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종간 조정과 어업인 설득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목포=이성진기자 sslee@

전남서남부농협 최우수 나주세지농협 우수조직 산지유통 종합평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09년 산지유통 종합평가에서 전국 270여개 산지유통 전문조직 가운데 전남서남부세지농협(조합장 전영남·오른쪽)이 최우수조직, 나주세지농협(조합장 이성호)이 우수조직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남본부는 올해 경기침체와 소비부진 속에서도 10월말 현재 1조9천여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올해 목표 2조5천여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복 전남농협 본부장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산지농협이 유통혁신과 판매사업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남도와 함께 농산물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더욱 높여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지유통종합평가는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 제고 및 유통체계구축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종대기자 jilee@

화순 ‘농어촌 뉴타운’ 사업 탄력

당초 예정지 축척리 주민 “농주 잠정지구로 변경 동의”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화순군이 추진하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농주면 잠정지구로 최종 확정된 뒤 당초 예정지였던 축척리 주민들이 반발해 갈등을 빚어왔으나 지난 2일 조건 없이 대상지 변경에 동의하기로 함에 따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화순군에 따르면 도곡면 축척리 주민대표단과 전안동 화순군수는 지난 1일 간담회를 갖고 대상지 변경에 동의했다. 이어 축척리 주민들은 2일 화순군의회를 방문, 사업대상지 변경동

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회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시성(55·도곡면 축척리) 대상지 변경 반대추진위원장도 “더 이상 대항 경우 화순군 농업발전예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대상지 변경에 아무런 조건없이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당초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대상지 후보지로 도곡면 축척리 주민을 신청했으나, 농식품부 선정 후 1일 간담회 개최 등 대상지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밝혀져 불가피하게 잠정지구로 변경

하게 됐다.

농어촌 뉴타운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으로 200세대(분양 50세대·임대 150세대)를 건축한다. 우선 올해 입주자 모집·토지매입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변경 반대추진위원장은 “더 이상 대항 경우 화순군 농업발전예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대상지 변경에 아무런 조건없이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당초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대상지 후보지로 도곡면 축척리 주민을 신청했으나, 농식품부 선정 후 1일 간담회 개최 등 대상지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밝혀져 불가피하게 잠정지구로 변경하게 됐다.

/송기동기자 song@

국화와 韓方이 만나면...

道-함평보건소, ‘국화 효능’ 심포지엄

대표적인 가을꽃인 국화를 한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술토론회가 3일 함평엑스포공원 영상관에서 열렸다.

전남도와 함평군보건의소(소장 유경순)가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전국 한의학과 관계자와 보건소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방산업의 실용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운(한양대 예방의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한방평가단장이 “한의약 사업 활성화”, 정종길 동신대

한의과 교수가 ‘국화 등 지역 약용자원 산업화’로, 신광호 한국한의학연구원 실장이 ‘한의학 사업 실용화 방안’ 등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유경순 함평군보건의소장은 “국화는 각종 바이러스 억제와 알,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에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으로 국화의 효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폐기물 처리 허가취소 처분청구소송

무안군, 호남비료에 패소

무안군으로부터 영업허가가 취소된 호남비료공장이 1년여 동안의 소송 끝에 허가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남비료측이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6년 비료생산공장을 등록한 데 이어 1999년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아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매립 수거해 비료로 만들어 농협 등에 판매해왔던 호남비료는 2008년 8월과 9월 기준치 이상 질소수를 유출해 무안군으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러 무안군은 호남비료가 영업정지 상태에서 비료판매행위를 계속했다면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들어 폐기물 처리허가를 취소했다.

호남비료는 ‘폐기물처리와 비료판매는 별개의 만큼 허가취소는 부당하다’며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의 승소판결은 “위반 수거해 비료로 만들어 농협 등에 판매해왔던 호남비료는 2008년 8월과 9월 기준치 이상 질소수를 유출해 무안군으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무안군은 고법에서 패소하자 즉각 대법원에 상소했지만 지난 10월15일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제대 (KMB) featuring a table of real estate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태양광발전소 (Solar Power Plant) and 부지 급구함 (Land Acquisition) servic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regional services.

Advertisement for 正心 正視 正行 (Jeongsin Jeongsi Jeonghyang) real estate services,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with detailed specifications.